

# 영산강 Y벨트에 '걷고싶은 역사문화유산길' 만든다

### 광주시, 신창동유적지에 마한 옛 수로 재현...저습지 생태 복원 영산강·황룡강 조망 문화유산 '호가정'에 수변 산책로 등 조성

광주시가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영산강 Y프로젝트'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부터 황룡강으로 이어진 호가정까지 '걷고 싶은 역사문화유산길'을 조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신창동 유적지에 2000년 전 마한의 옛 수로를 재현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에 역사길을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생태가 함께하는 시민공간 구축에 나선다.

시는 국비 1억원을 투입해 설계를 우선 추진하며, 신창동 유적 서쪽 구릉 경사면에서 시작해 저습지로 이어지는 500m 길이 수로를 조성해 저습지 생태 복원을 추진한다. 수로는 옛 마한의 자연 배수로 형태로 재현되는 게 특징이다.

광주시는 자연 배수로 설계를 위해 관련 문화재 전문가 의견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철저한 고증을 거쳐 배수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신창동 사적 내 배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주민 민원을 수렴하고, 광산구와 협업을 통해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1992년 9월 국가사적 제375호로 지정됐으며, 월봉산 능선의 끝자락에 자리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초기 철기시대와 삼한시대의 생활상을 추정할 수 있는 유물이 발굴되는 등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사업으로 '신창동 종합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신창동 유적의 종합적인 복원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신창동 유적의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과 역사공원 조성, 마

한유적체험관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영산강과 황룡강 합수부에 위치하고 수변 경관 조망이 우수한 '호가정' (시 지정 문화유산)도 국토교통부 2023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9억원으로 들어 올해 내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역사문화유산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호가정 주변 환경정비(둘레단 설치, 수목정비 등)와 인근 영산강·황룡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산책로 및 경관정원 조성 등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와관련해 17일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열고 역사·문화·환경이 어울리는 수변 산책로, 경관 정원 조성 등을 심의한다.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역 역사유산과 영산강 Y프로젝트의 시작점인 신창동 유적과 황룡강에 이어진 호가정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역사문화 유산길을 내실 있게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가 '걷고 싶은 역사문화 유산길' 조성 사업지로 포함한 시 지정 문화유산인 호가정 전경. <광주시 제공>

## 전남도 '블루푸드' 육성... '수산물 가치창출 전략포럼' 개최

###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 집중 논의

전남도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김 산업연 협회와 함께 오는 25일 오후 장흥에서 블루푸드를 전남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물 가치창출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블루푸드는 수산물을 의미하는 씨푸드(Sea Food)를 넣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건강에 좋은 영양 공급원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포럼 기조강연은 '미래 블루푸드테크, 전남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주도형 블루

푸드 기술발굴 전략에 대해 오윤열 해양수산과학 기술원장이 맡았다.

이어 오철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의 '국내 수산부산물 가치와 활용연구 사례', 이상민 (주)대상 목포센터장의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 현황과 김 산업 미래', 하남출 서울대 교수의 '김 활성처리제 개발과 김 산업 발전방안'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하남출 교수의 주제발표는 김양식 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김활성처리제 개발건으로 고수온기에 갯병 예방 효과가 있는 신제품 연구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고 있어 김양식 어업인의 높은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중합토론에서는 오윤열 원장을 좌장으로, 박영재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 류지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경삼 김 산업연합회 본부장, 오철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책임연구원, 이상민 센터장, 하남출 교수가 참석해 '식량에서부터 산업원료까지, 블루푸드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박영재 과장은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는 블루푸드를 전남의 새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민고 먹는 광주 대표 맛집 소개합니다"

### 광주시, 50곳 선정...지정패 교부·맛집 지도 제작 등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미식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광주 맛집' 5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맛집은 한정식, 애호박찌개, 육전, 떡갈비, 보리밥 등 광주 대표 음식을 다루고 있다.

광주시는 맛집에 대한 시민 인지도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격년제로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해마다 선정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위해 평가위원 수를 3배 이상 늘리고 시민 온라인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지정패 교부, 온오프라인 맛집 지도 제작,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식탁·조리장 등 시설을 개선하면 식품진흥 기금을 우선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2025년 광주 맛집 선정에 위한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김준영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맛집을 적극 홍보하고 알려지지 않은 맛집은 지속 발굴해 미식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참여기업 모집

### 전남도, 26일까지 접수

### 10개사 선정...15억원 투입

전남도가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할 중소형 조선사, 조선업 협력사를 모집한다.

전남도는 전남지역은 중소형 조선소, 대형조선사 사외협력사, 조선기자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현장 진단을 통해 국·도비 등 15억원을 투입해 조선업 생산 현장 내 맞춤형 보건·안전·환경 대응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안전·환경 기술 지원의 경우 8개 기업을 선정, 최대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고급 안전장치기

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안전·환경 시설 지원 사업에는 2개 기업을 선정해 화재 안전시설, 작업장 조명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50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따라 관련 사업자 선정시 우대 가산점을 적용받는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뿐 아니라 관련 업종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층의 지역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전남산 조생양파 수도권서 인기 전남도, 판촉행사서 7t 판매

전남도가 고품 거금도를 시작으로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14일까지 수도권 판촉행사를 진행해 모두 7t을 판매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양파 재배면적 6079ha 중 조생종은 1239ha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조생양파는 3월 하순부터 제주도에서 출하가 시작돼 전남산은 4-5월 가장 많이 출하된다. 올해는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해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 이에 전남도는 조생양파 출하 시기에 맞춰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품 거금도 조생 햇양파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특관을 추진,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톡톡'

### 초미세먼지 5년새 최저

최근 광주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광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8.7 $\mu\text{g}/\text{m}^3$ 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평균 농도(33 $\mu\text{g}/\text{m}^3$ )보다 43.3% 개선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21.6, 2차 23.9, 3차 23.1, 4차 23.3에서 5차에는 가장 낮아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15 $\mu\text{g}/\text{m}^3$  이하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58일로 전년(36일)보다 22일 늘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36 $\mu\text{g}/\text{m}^3$  이상일 때 내려지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12일로 전년

(14일)보다 줄었다.

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차 저공해화, 집중 관리 도로 지정 등 3개 분야 16개 저감 대책을 집중 추진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실제 5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운행차량은 4차 계절관리제 시범운영 기간보다 52.6%(29만 7399→14만995대) 감소했다.

또 지난해까지 노후차 3만5889대를 저공해화(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2만6188대, 비산먼지 발생 우려 공사장 311개소, 대기배출사업장 347개소에 대해 단속 및 점검을 강화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해도 고농도 상황이 발생하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